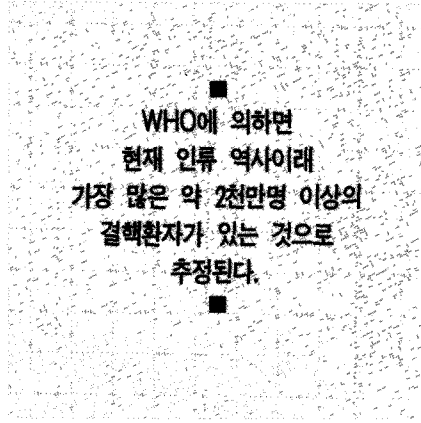


'97년도 결핵관리 정책방향

이 영 휘

보건복지부 방역과 사무관

WHO에 의하면 현재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약 2천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 세계 인구의 1/3인 17억 2천 2백만명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돌아오는 2000년대에는 결핵 없는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한해에도 결핵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결핵환자가

극히 미미하여 국가관리를 하지 않던 미국, 유럽 등에서도 결핵환자가 약간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결핵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난치성결핵환자의 증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신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의 결핵에 대

○안전한 예방접종

-BCG 예방접종 대상 조정

그간 BCG 예방접종은 초등1년까지 초회접종을 실시하고 초등6년생에 대하여 PPD 결핵반응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재접종을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WHO에서는 BCG 재접종 폐지를 권고하여 왔다.



▲ 96년도에 개최된 「2000년대 국가결핵관리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BCG재접종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97년도부터 초등 1년생 이하에 대한 BCG초회접종만 실시하고 초등 6년생에게 실시하던 재접종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미취학 아동 560천명, 초등1년생 87천명 총 647천명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PPD 생산보급 개선

PPD(결핵반응검사시약)는 WHO로부터 원말을 공급받아 국립보건원에서

ITU 및 5TU 제품을 희석·생산하여 일선보건소 등에 보급하여 왔다.

그러나 '96.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신설에 따른 국립보건원의 직제 조정으로 방역예방약품 생산기능 상실로 국립보건원에서의 PPD 희석·생산이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역가가 높은 고품질의 PPD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민간제약회사의 GMP시설을 이용, 희석·생산하여 일선보건소망을 통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할 계획에 있다.

■
BCG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고역가의 BCG
10인용 바이알 제품을
생산 보급할 계획이다.
 ■

특히 PPD는 진단 및 예방화학 치료 목적이나 특수목적(결핵균 감염률 조사 등)에 사용분만을 희석하여 생산할 계획이다.

-BCG 생산시설 현대화

그간 BCG 예방접종약품을 국가결핵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대한결핵협회 결핵 연구원에 위탁하여 20인용~50인용 앰플 제품을 생산하여 일선보건소에 보급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노후화, 생산공정의 자동화, 대용량에 따른 높은 손실률 및 사용상의 불편 등의 문제 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BCG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역가의 제품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95년부터 투자에 힘써 왔다.

현재까지 냉동건조기 등 생산장비 구입과 자동화생산시설 등 총 1,57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역가의 BCG 10인용 바이알제품을 생산하여 보급할 것이다.

-표준예방접종지침 개발·보급

예방접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나 일차보건예방사업기관인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 실시 방법의 차이로 예방접종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지침을 금년중으로 마련하여 전국보건소 및 병·의원 등 예방접종 취급기관에 배포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예방화학요법 적극 시행

결핵환자의 가족 중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한 예방화학 요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BCG 재접종 폐지로 PPD 1TU의 생산은 폐지하고 5TU만을 희석·생산토록 하여 전국 시·군·구 보건소망을 통하여 전국 전 의료기관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계획이다.

○2000년대 국가결핵관리 정책개발을 추진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결핵관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96년도에 "2000년대 국가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금년에는 결핵전문가로 구성하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핵환자의 보건소 등록치료 등 지속적 투자관리

-결핵환자 중 신환자, 재발환자 및 재치료환자 등 결핵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건소 등록치료를 적극 유도하고, 등록환자에게는 무료투약을 실시한다.

-생활이 어려운 난치성결핵환자에게는 결핵전문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내소자와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객담검사 및 엑스선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오·벽지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자 등 총 110천명에게

■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결핵협회를 중심으로
결핵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개 엑스선 이동검진반을 투입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관리사업을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관리요원의 능력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결핵관리 실무요원을 중심으로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결핵협회를 중심으로 결핵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